

## 한-일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 비교연구\*

강대중(姜大仲)\*\*

박지숙(林志淑)\*\*\*

김의태(金義泰)\*\*\*\*

###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단체인 <다시서기센터>와 일본의 <홀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를 사례로 선정해 두 단체가 전개하고 있는 교육지원활동의 내용을 살펴본 후 양국의 교육지원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배경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은 공통적으로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지원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양국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의 경우,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을 통한 자활의지 향상과 함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단계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숙인의 자립·자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노숙인에게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 모두 노숙인의 근본적인 자립을 위해 보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가 펼치고 있는 교육지원활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주요어 : 노숙인, 한국, 일본, 노숙인 지원 단체, 교육지원활동, 학습권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2010년도 아시아 기초연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논문의 초고는 2013년 1월 25-26일 일본 고베대학에서 일본사회교육학회와 한국평생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4회 한일학술교류연구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제 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

\*\*\*\* 공동저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

## I. 문제제기

한국 사회의 노숙인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등장했다. 노숙인의 등장은 당시 외환 위기의 사회적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각종 매체에 노숙인들의 비극적인 생활상이 보도되면서 여러 단체들이 응급보호와 의료서비스를 앞 다퉈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서울역 등 노숙인이 밀집했던 주요 도시의 기차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원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 위탁사업을 맡기면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노숙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노숙인 숫자는 2000년 이후 4,500~5,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구인회·김소영·유야마 아쓰시, 2012). 2010년 10월 20일과 10월 27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천안, 강릉 등 6개 도시에서 조사된 거리 노숙인 숫자도 각각 1,516명과 1,458명에 달했다(서종균, 2011).

한국 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도 노숙인 문제가 여전하다. 2011년 현재 일본의 노숙인 숫자는 12,848명이다(구인회·김소영·유야마 아쓰시, 2012). 일본은 2002년 <홈리스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하 <자립지원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해 노숙인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2003년 25,296명에 달했던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많이 감소했지만, 노숙인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심지의 단신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시주거지역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노숙인 밀집지역으로 변하면서 노숙인 문제가 고착화된 것이다. 일본에도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숙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2010년에는 64개 노숙인 지원 단체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NPO 法人 ホームレス支援全国ネットワーク)>(이하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라는 전국적인 연합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구인회·김소영·유야마 아쓰시(2012)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연구가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발표된 비교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개별 국가의 노숙인 문제와 정책을 소개하는 연구가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문제 특성을 복지제도와 주거정책, 정부의 노숙인 정책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했는데, 두 나라 모두 중고령 단신 남성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의 노숙 문제나 노숙인 가족과 자녀 문제가 주목받는 서구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 모두 기업에 고용된 정규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정부가 빈곤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주거지원을 하지 못해 노숙인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김수현(2010) 또한 한국과 일본이 고령 노숙인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보호시설의 미비, 공공부조제도의 취약성 등이 빈곤 노인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런 현상이 국가복지 수준은 낮은 반면 가족복지 의존성이 높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유교적 복지체제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

다. 노숙인 복지정책과 관련, 한국의 경우 노숙인을 쉼터로 수용하는 등 시설보호 위주의 소극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친 반면 일본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주거우선 전략에 바탕을 둔 생활보호제도의 주거부조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은 탈노숙의 성과가 적고 상대적으로 거리노숙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일본은 거리노숙인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구인화·김소영·유야마 아쓰시, 2012).

노숙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노숙인 문제가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다. 고용불안, 불우한 가정환경, 이혼과 가출 등 가족해체,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 노숙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신명호, 2011).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일단 거리로 나온 노숙인은 적극적인 외부 지원 없이는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화된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 진료나 잠자리 제공 등 긴급구호나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는 접근 대책이 요청된다. 그 가운데 노숙인들이 스스로 자립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강대중, 2012; 김의태·강대중, 2012;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2012; 신명호, 2012; 임철우·우기동·최준영, 2008). 이와 관련, 한국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단체로서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상당보호센터>(이하 <다시서기센터>)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교육적 실천은 독보적이다. <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신용회복, 취업 및 면접기술, 재활치료 등 특강 형식의 다양한 노숙인 대상 교육을 펼쳐왔다. 특히 노숙인을 위한 동기부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1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시작된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이하 <인문학과정>)과 2011년부터 시작된 <노숙인과 함께 하는 시민연극 프로그램>(이하 <시민연극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거친 노숙인들의 자립의지와 실질적인 변화는 여러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숙인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업과 주거지원이 연계된 노숙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지원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몸소 체험하며 습득하기도 하고, 자립지원주택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기술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받기도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가 2012년 노숙인 지원 단체 실무자를 위한 전문자격 과정을 개설하고 그 양성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등 노숙인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이 활발하다.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성과는 서구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1987년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를 제정하고 홈리스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National Center for Homeless Education를 설치했다. 같은 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공한 노숙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1995년까지 약 32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Drury & Koloski, 1995; 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1998). 이른바 노숙인 대

상 교육프로그램은 노숙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Rivera(2003)는 미국 Boston 지역의 노숙 경험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한 민중교육(popular education) 프로그램 연구에서 노숙 여성들의 자존감과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클레멘트 코스’로 알려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육의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Stevenson, Yashin-Shaw & Howard, 2007; Howard et. al.,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노숙인 지원 단체들의 교육활동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단체인 <다시서기센터>와 일본의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의 교육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동아시아의 이웃 나라로 여러 사회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노숙인 문제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적지 않다. 두 나라의 노숙인 관련 비교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지원을 위한 단체의 교육 활동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한국과 일본의 단체 교육 지원 활동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및 그 원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사례

한국의 <다시서기센터>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1998년 서울시로부터 노숙인 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노숙인 지원 단체들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거, 급식, 의료 등 개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시서기센터>는 주거, 일자리, 급식, 의료,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이다. 또한 <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 현황 조사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노숙인 지원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다시서기센터>에는 현장지원팀, 사업기획팀, 운영지원팀, 의료지원팀, 고용지원센터 등 총 5개의 부서가 있으며, 기초생활지원 사업과 의료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상담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비롯한 노숙인 복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 서울특별시청 등의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다시서기센터>의 사업들은 외부의 다양한 기관과 매우 긴밀한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는 2010년 64개의 노숙인 지원 단체가 결성한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이다.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는 다음 아홉 가지 강령을 기초로 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은 물론 노숙인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홈리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2)<자립지원법>을 활용한 홈리스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3)국가가 해야 할 자립지원과 사회의 자세에 대해 제언한다. (4)홈리스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의 협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5)‘길거리로부터의 탈출’을 자립지원 과제로 설정한다. (6)자립 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7)취업, 일자리를 통한 자립 뿐 아니라 복지 활용형 자립(반노동 반복지형 포함) 등 다양한 자립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자립을 경제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전인적 측면을 고려한다. (8)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한다. (9)네트워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는 노숙인 지원 업무를 전문 영역으로 특화하여 담당하는 ‘반주형지원사(伴走型支援士)’ 자격을 만들어 2012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급 자격 강좌를 오사카에서 개최했다. 또, 반주형지원사의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반주형생활지원 육성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2012년 8월에 만료된 <자립지원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에 소속된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와 도쿄의 <자립지원센터 고향의 모임>(이하 <고향의 모임>), 기타큐슈의 <기타큐슈 홈리스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활동을 분석하였다.

## 2. 자료 수집

<다시서기센터>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실장과 팀장급 실무자 등 총 4명의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였다. <다시서기센터>의 기관 차원과 실무자 개개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숙인 지원활동 전반은 물론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실제 운영, 노숙인 지원활동의 어려움 등에 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다시서기센터>의 다양한 교육지원활동들이 실제로 노숙인의 자립·자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노숙인들 스스로 교육지원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진이 참여한 <서울대학교 노숙인 생애사 아카이브>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타 한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활동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

일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진은 두 차례에 걸쳐 현지 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2012년 2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노숙인 밀집지역인 오사카 카마가사키(釜ヶ崎) 지역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노숙인 연구자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전반적인 일본 노숙인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카마가사키 지역에서 노숙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인 <오사카 시립 갱생상담소>, <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카마가사키 지역의 노숙인 현황과 기관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이면서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카마가사키 지원기구>를 방문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통역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당시 오사카 지역을 방문 중이던 고베 지역의 노숙인 지원단체 활동가들과의 식사를 겸한 대화를 통해 일본의 노숙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2012년 3월 3박 4일의 일정으로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오사카에서 열린 반주형지원사(伴走型支援士) 교육 및 인정시험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일본어로 인터뷰하였다. 또,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I를 인터뷰하여 일본 노숙인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지 방문 전인 2011년 10월에는 <키타큐슈 지원기구>에서 오랫동안 노숙인 지원 활동을 경험한 일본인 활동가 E를 서울에서 인터뷰하고 일본의 노숙인 단체 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진은 노숙인 문제를 다룬 영어와 일본어 단행본을 통해 일본 사회가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일본어 인터뷰는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문서와 책자 등의 자료는 필요한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유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일본 현지의 연구자와 활동가들과 이메일을 통해 수집하였다. <표 1>은 이 연구를 위해 개별적으로 인터뷰한 참여자 목록이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목록

	구분	직위	일시
한국	A	다시서기센터 실무자	2012년 5월 1일
	B	다시서기센터 실무자	2012년 7월 6일
	C	다시서기센터 간부	2012년 7월 11일
	D	다시서기센터 실무자	2012년 7월 11일
일본	E	노숙인 지원 활동가(키타큐슈 지원기구 자원봉사 경험자)	2011년 10월 30일
	F	사회복지전공 대학 교수	2012년 3월 9일
	G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간부	2012년 3월 10일
	H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실무자	2012년 3월 10일
	I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실무자(노숙인 출신)	2012년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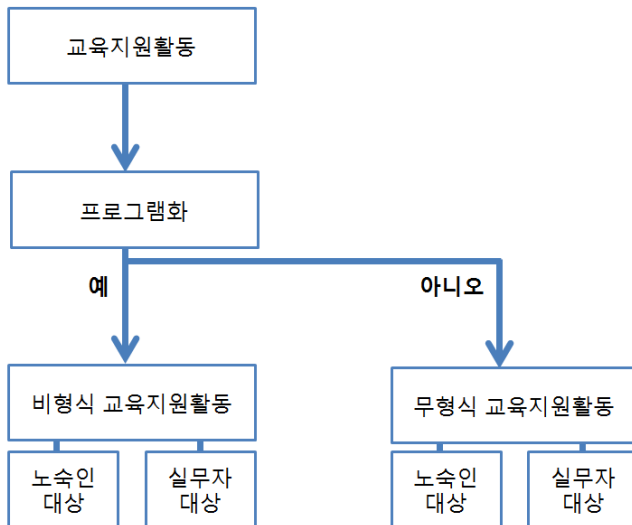
### 3. 분석의 틀과 분석방법

연구 자료에서 우선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지원 활동을 정리하고 교육지원활동으로 볼 수 있

는 것들을 추출한 뒤 대상과 형식에 따라 다시 분류했다.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은 노숙인은 물론 실무자도 대상으로 했다.

교육활동의 형식 분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 분류 방식을 따랐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자와 선발된 학습자가 특별히 제한된 장소와 시간, 커리큘럼 등의 형식을 통해 정규 학위과정으로 인정되는 형식교육과 달리,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위과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느슨하며 제도화 수준이 약한 특징이 있다. 비형식 교육은 교육 계획과 평가 등의 형식성은 갖추고 있지만 학습결과를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무형식 교육은 인위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자의 참여, 학습내용, 학습 결과의 인정 또한 개방적이다. 그러나 무형식 교육은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인 학습과는 다르다. 교육목표와 내용, 그것들 간의 조직과 구성이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위적인 교육상황 또는 학습상황 밖에서 일어나는 목적의식적인 교육을 무형식 교육이라 할 수 있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교육지원활동을 '노숙인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활동의 전반'으로 정의하고, 시간, 장소, 교수자, 학습자, 교수-학습 내용 등이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형식 교육지원활동과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비형식,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은 각각 대상에 따라 노숙인 대상과 실무자 대상의 교육지원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 중 정규 학위과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형식 교육지원활동은 분석의 틀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 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여 한일 양국의 비형식,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의 교육지원활동이 노숙인과 노숙인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교하여 한일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종 도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노숙인 대상 비형식 교육지원활동

##### 1) 한국의 사례

한국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단체인 <다시서기센터>는 비전트레이닝센터,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금전관리, 건강 및 심리치료,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들 단기(短期)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문학과 연극이라는 테마로 하는 1년 과정의 장기(長期)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하였다. 이들 비형식 교육프로그램들은 <다시서기센터>의 교육지원활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 단기(短期) 교육프로그램 사례

<다시서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비형식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특강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재활교육프로그램과 자활의지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취업기술훈련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재활교육프로그램에는 알코올 교육과 단도박(斷賭博) 교육, 자활의지회복프로그램에는 신용회복 및 파산면책 교육, 자활특강교육, 미술치료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취업기술훈련프로그램에는 면접의 달인, 직업돋보기, 취업특강, 직업훈련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2007년 노동부 위탁 노숙인 취업 지원기관인 <사회망고용지원센터>가 신설되어 자활 및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의지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lt;표 2&gt; 2010년 &lt;다시서기센터&gt; 단기 교육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주제 및 교육내용	강사 및 연계기관
재활 교육	알코올 교육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개인별/집단별 상담	비전트레이닝센터
	단도박(斷賭博) 교육	습관성 도박 예방 및 건전한 문화생활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자활 의지 회복	신용회복 및 관리교육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이해와 절차 및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파산면책	파산면책 신청절차와 각종 서류작성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자활을 꿈꾸다	센터 내 자활근로대상자의 자활의지 고취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마음너누기(미술치료)	자기이해와 공감적 대인관계 향상	마음문제연구소
	튼튼건강교실	무기력해진 정신과 신체 건강의 회복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
	집단상담프로그램	자기이해와 자신감 회복 및 대인관계프로그램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웃음노래교실	웃음치료기법을 통한 심신 치료	한국웃음연구소
	새희망을 찾아가는 자활특강	삶의 목표를 재설정을 위한 인문학 특강	성프란시스대학
	산재보험 교육	산업재해 예방법과 대처법, 산재보험의 이해	근로복지공단
	금전관리교육	금전관리 및 저축의 중요성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취업 기술 훈련	직업돌보기	직업세계 이해와 구직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면접의 달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 훈련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취업특강	구인자의 입장에서 보는 구직자의 모습과 필요사항	독도쿠키사업단 <sup>1)</sup>
	직업훈련연계	조선소 특수용접교육생 모집과정 연계, 용접교육	제이엠커리어 <sup>2)</sup> / 울산 이영산업교육원

(출처: 2010년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참고)

하지만 이러한 특강 프로그램들은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단발성 집체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또, 대부분이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비정기적인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데,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취업, 자존감 회복, 건강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

1)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NPO)인 전국백수연대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독도 홍보라는 목표로 2009년에 출범한 제과업체. 2009년 6월에는 노동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직원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 수익금의 2/3를 독도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있음. (출처 : 위키백과)

2)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취업훈련기관

상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각 부서별, 사업별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교육 내용과 대상자가 중복되기도 했다.

## (2) 장기(長期) 교육프로그램 사례

<다시서기센터>는 <인문학과과정>과 <시민연극 프로그램>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비형식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과과정>은 문학, 철학, 예술사, 한국사, 글쓰기 등 1년 2학기 과정의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으로서 2005년에 시작되어 2013년 1월 현재 8기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연극 프로그램>은 교육연극단체인 <프락시스>가 <다시서기센터>와 함께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으로 2013년 1월 현재 2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인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 작품을 매 학기 상연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노숙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한 재활교육이나 취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노숙인의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치료하거나 단순한 직업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등 노숙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장기 교육프로그램들은 노숙인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자기표현 및 성찰 그리고 사회성 향상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평범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중요시했다(프락시스, 2011). 매 기수의 참여인원도 10~2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1년 정도의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참여 중심 비형식 교육지원 활동은 노숙인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오랜 경험에 기초한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숙인은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자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의태·강대중, 2012; 다시서기센터, 2011). 수료자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서기센터>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인문학과과정>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한없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인문학교육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원을 하더라도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인문학이나 연극프로그램을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으로 교감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심리적 지지망을 형성하죠. 이런 것들이 촘촘하지 않으면 그냥 주거 제공, 일자리 제공만 해가지고는 (삶의 여러 지지대들 중) 젓가락 하나를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서로 지지해주고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아요(<다시서기센터> 간부 C 인터뷰 중).

## 2) 일본의 사례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취업과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비형식 교육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서기센터>와는 달리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기관 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노숙인을 소개·연결시켜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취업과 관련된 교육지원활동의 경우 일터에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제식 교육을 택하고 있었다. 비형식 교육지원 활동으로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와 <키타큐슈 지원기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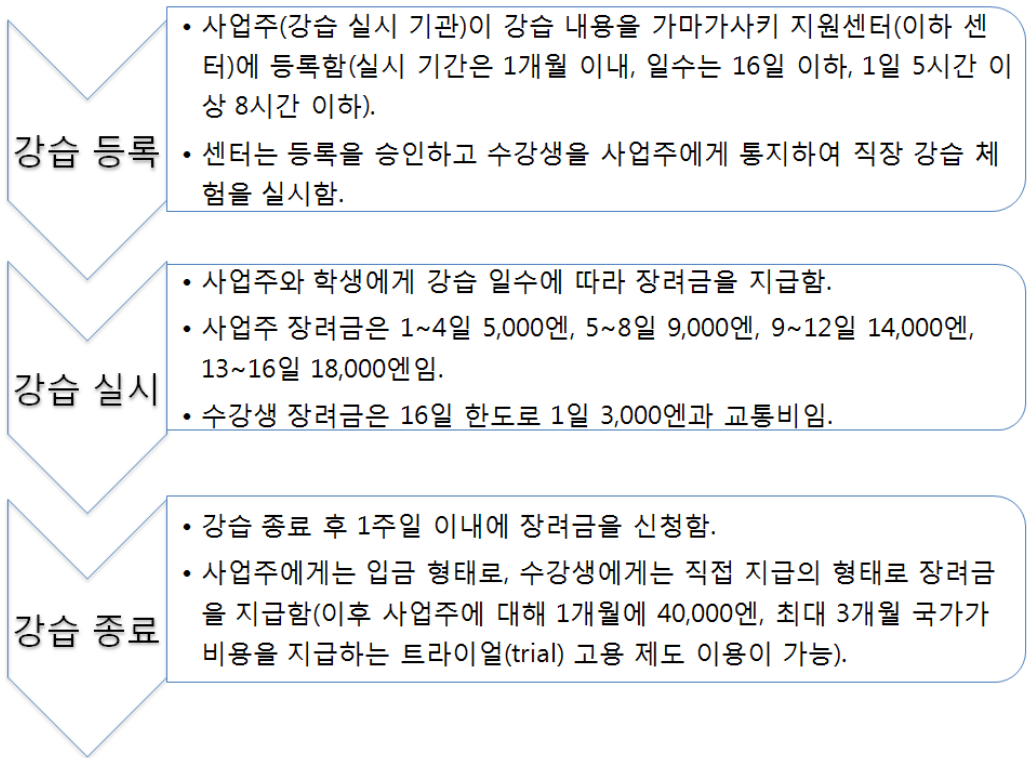
### (1)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의 사례

<카마가사키 지원기구>는 ‘자전거 리사이클 사업단’과 ‘원예사업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기능 강습을 중심으로 교육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자전거 리사이클 사업단은 현 자전거를 수리하여 사업소에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며, 원예사업단은 일반 가정이나 회사, 공원 등의 화단과 화초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노숙인은 각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전거 수리, 화단조성 및 공원관리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지원활동은 일터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도제식 교육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카마가사키 지원기구>가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일터에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문제와도 관련된다. 일반인보다 취업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노숙인에게 직업교육 참여 이전에도 일자리가 나면 바로 연결해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교육프로그램에 노숙인을 참여시켜 해당 기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사업단의 작업 현장에 투입하기는 것은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우려가 크다. <후쿠오카 지원기구> 역시 노숙인 지원 단체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건설부문 중장비 기계 교육이나 요양보호사 교육 등을 운영하는 다른 교육기관에 노숙인을 연계해주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노숙인들이 노상에서 죽지 않도록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의지만으로 노숙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당사자의 생각도 바뀔 것이다. 즉 그 노숙인과 관계된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로 인해 당사자의 의지와 사고방식도 변화할 것이다. 교육훈련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 동시에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카마가사키 지원기구> 활동가 G 인터뷰 중).

<카마가사키 지원기구>는 ‘직장체험강습(職場体験講習)’이라는 비형식 교육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을 강습의 주체로 하고 <카마가사키 지원기구>는 직업체험을 위한 연계지원

을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직장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카마가사키 지원기구>는 강습일수에 따라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노숙인에게도 수강 장려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이 사업의 흐름은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의 직장 체험강습 과정  
 (출처: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www.homeless-shien.jp/saiyou/>)

(2) <키타큐슈 지원기구>의 사례

<키타큐슈 지원기구>는 ‘자립지원주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숙인에게 6개월 간 머무를 수 있는 주택(아파트)을 제공하고 그동안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단순히 주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 노숙인들은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와 6개월 간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립지원주택에 입소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비형식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와 체조 프로그램, 생활기술교육(분리수거, 요리 등)이 있으며, 자립지원주택에 입소한 노숙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밖에도 자립지원주택 건물 내에 카페테리아 형태의 쉼터

를 마련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노숙인들과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교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 2. 노숙인 대상 무형식 교육지원활동

### 1) 한국의 사례: 멘토링과 자조모임

<다시서기센터>는 일반 상담지원<sup>3)</sup>뿐만 아니라, 멘토링 중심의 무형식 교육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지원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멘토링은 <다시서기센터> 실무자가 개별적으로 노숙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생활과 일자리, 주거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실무자들은 <다시서기센터>의 다양한 비형식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탈노숙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노숙인들과 자연스럽게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한다.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변화된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숙인들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확보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유지한다.

사실은 제가 만나서 (멘토-멘티 관계에 있는 노숙인을) 매입임대주택 모임에 넣어준 거예요. 측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시키고 다시 가족이 합치게 해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야. 최고의 단계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제로 밀어넣기도 하죠. 인문학 동아리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이가 훨씬 더 많이 보고 많은 통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부분적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다시서기센터> 실무자 A 인터뷰 중).

이와 함께 <다시서기센터>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은 노숙인들의 자조모임 또는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실무자-노숙인의 멘토링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노숙인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삶의 또 다른 지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희망FC 축구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치모임’, <인문학과정>의 품물패 활동, 인접 지역의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 사이의 ‘밥모임’ 등이 이런 멘토링에서 파생된 자조모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다시서기센터>와 센터 실무자 또는 활동가들은 “불쏘시개” 또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모임 참여자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각종 문화행사에 풍

3) 일반 상담지원의 경우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위치한 상담소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지원과 응급구호, 취업 및 신용회복, 주거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상담소 또는 <다시서기센터>로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패의 공연 기회를 마련하는 등 노숙인들의 자율적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참여 중심 비형식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은 실무자 또는 활동가와 노숙인의 신뢰 관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별 노숙인에게 보다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목표인 거예요.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희망FC,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해보자', 성프란시스대학 동문회 이런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 해요, 굉장히 자신감 없던 사람들 옆에 동료들이 지켜주잖아, 정보도 공유하고 또 서로 주거지도 연계해 주고(<다시서기센터> 실무자 A 인터뷰 중).

## 2) 일본의 사례: 'One-stop Service'

일본 노숙인 지원 단체의 노숙인 대상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은 상담과 멘토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자리와 주거를 포함하는 생활 전반을 다룬다. 이와 같은 노숙인 지원을 일본에서는 'One-stop Service'라고 칭하는데, 실무자가 노숙인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상담과 멘토링을 지속하여 다시 노숙 생활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담과 멘토링 과정을 통해 비형식 교육지원활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노숙인은 단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노숙 생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도 규칙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와 취업지원만큼이나 상담과 멘토링과 같은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은 단절된 끈을 다시 연결하는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의 경우, 상담 및 멘토링은 실무자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함께 실시한다. 현재는 2명의 전담 실무자와 1명의 비상근 실무자를 포함하여 9명이 상담 및 멘토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상담, 생활 지원 및 주택 방문 멘토링, 생활 보호(시설 입소 포함)절차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 각자의 처한 상황과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과 멘토링이 강조된다. 특히 시설 입소 절차를 포함한 생활 보호 절차 지원이 중요한데, 이는 노숙 생활을 벗어나 주거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자가 동행하여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도 한다.

살 곳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 주거나, 노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 몸 상태를 물어보거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치료를 권

유한다던가, 잘 곳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돕습니다. 알콜중독자이거나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바로 주면 술을 사버리기 때문에 같이 가서 밥을 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방문을 해서 생활 모습을 보거나, 계약서나 서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함께 가줍니다(<카마가사키 지원기구> 실무자 H 인터뷰 중).

<키타큐슈 지원기구>의 상담 및 멘토링은 자립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키타큐슈 지원기구>의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와 유사하지만 노숙인들 사이의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2년경부터 자립지원주택 옥상에 마련된 카페테리아에서 이루어지는 다도 모임 활동인 “동네 사랑방”은 비교적 역사가 깊은 활동으로서 차(茶) 문화가 발달한 일본답게 자립지원주택 옥상에 마련된 쉼터에서 입소자들이 일상적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또한 ‘홈커밍데이’는 자립지원주택 퇴소 후 탈노숙에 성공한 노숙인들의 동창회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노숙인들 사이의 멘토-멘티 관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다. 이들 활동에서는 입소자들이 서로의 보호자, 심리적 지지자가 되면서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거나 탈노숙에 성공한 선배 입소자가 자신의 탈노숙 경험을 소개하기도 함으로써 입소자간의 치료 모임의 성격을 갖는다.

### 3. 실무자 대상 교육지원활동

#### 1) 한국의 사례: 멘토링과 자조모임

<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실무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 활동가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표 2> 참조). 노숙인 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현장전문가와 학자들을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문학 특강 교육을 통해 활동가 자신의 자아성찰 및 자존감을 고취시켜 노숙인 복지 분야의 실천가로서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다시서기센터, 2011). 또한 노숙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꾀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다시서기센터, 2010: 108).

&lt;표 3&gt; 2010년 &lt;다시서기센터&gt;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제	강사 및 소속
1	애니어그램 수련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아성찰 및 자존감 회복	조정기 신부 (성공회대)
2	노숙인 복지 특강	노숙인 복지현장의 변천과 이해	현시웅 소장 (대구상담센터)
3		노숙인 복지정책의 변화와 홀리스 지원법	남기철 교수 (동덕여대)
4	노숙인 인권 특강	노숙인과 인권	오창익 국장 (인권연대)

(출처: 2010년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p.66)

하지만 이러한 실무자 대상 교육지원활동은 주로 단발성의 강의 중심 교육이다. 신규 실무자 교육 또한 노숙인 대상 교육지원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체계화되어 있다. 실무자 선후배 간의 멘토-멘티 관계를 통한 교육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환근무를 제도화해 실무자들이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활동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숙인 지원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 자격증(일본의 반주형지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와 같이 사회복지사 영역에서도 앞에 붙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숙인사회복지사 같은 게 필요할 것도 같아요. 노숙인이라는 영역이 워낙 특별하기도 하고 복합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전문자격제도 마련)도 차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서기센터> 실무자 D 인터뷰 중).

## 2) 일본의 사례

### (1) 반주형지원사(伴走型支援士) 자격

일본은 2002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적 체제를 정비했다. 하지만 실제 노숙인 지원 현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취로(취업)지원, 생활보호지원과 같은 긴급·단기 지원이 중심이었다. 게다가 <자립지원법>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의 종료를 앞두고 노숙인 지원 실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과 행정 체제를 포함한 노숙인 지원 전반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격의 체계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노숙인 지원



을 담당하는 인재 확보와 육성, 지금까지 쌓아 온 노숙인 지원 현장 경험의 축적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즉 탈노숙을 넘어서 탈노숙 이후의 생활까지 지원하는 일본 노숙인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전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숙인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이에 <홀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에서는 영국의 노숙인 지원정책을 모델로 삼아 현장에서 노숙인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반주형지원사(伴走型支援士)’ 또는 ‘PS(Personal Supporter)’로 명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커리큘럼으로 정리하여 이를 자격으로 인증하기 시작했다. 반주형지원사는 ‘함께 옆에서 달리며 지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긴급구호 중심의 단발적 지원이 아닌 탈노숙 단계와 탈노숙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주형지원사 자격 인증강좌를 연구·개발한 F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의 소셜워커(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애와 지역 전체를 생각하는 소셜워커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의 노숙인만 신경쓰기 때문에 설립자와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들이 다시 고독해지면 시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일반 소셜 워커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퍼스널서포터처럼 돌보는 스킬을 기르는 등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달린다는 의미의 반주형지원인 것이죠. (특히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케어를 위한 역할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반주형지원은 일반적인 소셜워커와 다른 것입니다(사회복지 전공 대학 교수 F 인터뷰 중).

2012년 3월 ‘반주형지원사 2급 인정 강좌’의 실시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2급 자격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1급 자격 인정강좌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자격은 2급, 1급, 매니지먼트 코스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급에서는 노숙인 지원에 대한 기본 이론, 1급에서는 노숙인 지원에 대한 심화 이론 및 현장에서의 실천, 매니지먼트 코스에서는 노숙인 지원 조직 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급수에 따른 인정 강좌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반주형지원사 등급 및 등급별 강좌 내용

등급	강좌 내용	비고
매니지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1)</li>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2): 사업자금</li>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3): 외부자금</li>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4): 홍보</li>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5): 인재육성</li>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6): 인사관리</li> <li>· 지원조직 관리, 운영론(7): 개인정보관리</li> <li>· 시설운영론(1)</li> <li>· 시설운영론(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인정자만 수강 가능</li> <li>· 인정 이후 3년 이후 갱신 강좌 수강해야 자격 유지 가능</li> </ul>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리스 지원의 본질론(2)</li> <li>· 홀리스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론(2)</li> <li>· 홀리스 지원의 기술론(2)</li> <li>· 홀리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2)</li> <li>· 홀리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3)</li> <li>· 홀리스를 위한 거주지원(2)</li> <li>· Care plan방식에 따른 홀리스 지원(3)</li> <li>· Care plan방식에 따른 홀리스 지원(4)</li> <li>· 홀리스 지원과 사회보장론(2)</li> <li>· 홀리스를 위한 취로지원(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 인정자만 수강 가능</li> <li>· 인정 이후 3년 이후 갱신 강좌 수강해야 자격 유지 가능</li> </ul>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리스 지원의 본질론(1)</li> <li>· 홀리스 지원의 기술론(1)</li> <li>· 홀리스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론(1)</li> <li>· 홀리스를 위한 거주지원(1)</li> <li>· 홀리스를 위한 취로지원(1)</li> <li>· 홀리스 지원과 after-care(1)</li> <li>· 홀리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1)</li> <li>· 홀리스 지원을 위한 갱생보호(1)</li> <li>· Care plan방식에 따른 홀리스 지원(1)</li> <li>· Care plan방식에 따른 홀리스 지원(2)</li> </ul>	

(출처: 2011년도 반주형생활지원사 인정강좌 안내자료)

## (2) <고향의 모임>의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도쿄를 중심으로 노숙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단체인 <고향의 모임>은 단체 내부에 여러 하위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위 단체 가운데 <단체법인 삶과 지역 만들기 지원기구(NPO法人 すまい・まちづくり支援機構)>는 노숙인 지원에 대한 연구회를 수행하면서 <고향의 모임> 직원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고향의 모임>은 도쿄 각 지역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방문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의료·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 및 법률과 지원기술에 대한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향의 모임> 실무자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매뉴얼(care management manual)’에 따른 ‘케어(care) 검정 제도’에 의거해 직원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케어(care) 검정 제도’는 노숙인 지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을 4단계(기초, 3급, 2급, 1급)로 나누어 각 단계의 직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검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기초등급에서 1급으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지역자원 연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연수·검정			직무영역·내용		
등급	연수	인정 방법	직무 영역	직무 내용	
1급	케어 연수 갱신	케어회의 연수	· 포괄지원계획 발표	지역 포괄 지원	· 수퍼비전 · 과제의 발견과 장(場) 설정 · 집단적 위기관리 · 지역 매니지먼트
↑					
2급	케어 연수 갱신	리더연수	· 토달 플랜 발표	연대 지원	·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 컨퍼런스 주최
↑					
3급	케어 연수 갱신	전체연수	· 필기시험 (기초지식) · 케어플랜 발표 · 연수 발제 · 연수 수료	지원 방침	· 문제해결 · 지원방침 입안 · 문제해결을 위한 key person역할 · 사회 서비스 평가
↑					
기초	케어 연수	강연회, 독서회	· 대인원조 레포트 · 연수 수료	기초 대응	· 생활지원에 대한 기초대응
		기초연수			

[그림 3] <고향의 모임> 케어 검정 제도

(출처: <고향의 모임> 홈페이지 <http://www.hurusatonokai.jp>)

## IV. 한국과 일본의 교육지원활동 특성

### 1. 한국 단체의 교육지원활동 특성

<다시서기센터>의 교육지원활동은 크게 노숙인 대상 교육지원활동과 실무자 및 활동가 대상 교육지원활동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노숙인 대상 교육지원활동은 다시 비형식 교육지원활동과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으로 나누어지며 비형식 교육지원활동은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장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은 멘토링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실무자 또는 활동가와 노숙인 사이의 1:1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무자 또는 활동가가 노숙인들

의 자조모임 또는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행태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시서기센터>의 교육지원활동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시서기센터>의 교육지원활동은 외부기관 또는 외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취업기술,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과 연극프로그램 또한 외부 강사와 기관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교육지원활동 전담인력이 부족한 <다시서기센터> 조직의 한계로 볼 수도 있지만,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지원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시서기센터>는 장기간에 걸쳐 참여하는 비형식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한다. 1998년 노숙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단발성의 집체식 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스스로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2005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을, 2011년부터는 연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1년 정도의 비교적 긴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숙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점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비중이 작은 반면, 실무자 개인 차원의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이 존재한다. <다시서기센터>의 실무자 및 활동가들은 개별적으로 노숙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숙인에 대한 상담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조모임 또는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실무자 및 활동가들은 노숙인과 1:1 관계의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그들의 또 다른 심리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일본 단체의 교육지원활동 특성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 중 하나인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의 교육지원활동은 네트워크에 속한 지원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숙인 대상, 실무자 및 활동가 대상 교육지원활동으로 구분된다. 그 중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취업 또는 주거지원과 연계된 비형식 교육지원활동이 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숙인 대상 비형식 교육지원활동의 경우는 주로 취업을 통한 탈노숙을 목표로 현직에서 일하면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간 연계'의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서는 따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종료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직업을 먼저 가지도록 한 후 직업세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제식 교육의 특징을

엇볼 수 있다. <카마가사키 지원기구>의 '직장체험강습' 프로그램은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탈노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무형식 교육지원활동인 상담과 멘토링의 경우 생활습관이나 위생 및 건강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탈노숙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에 대한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또한 <키타큐슈 지원기구>의 사례처럼 노숙인이 탈노숙 과정과 탈노숙 이후 혼자 남지 않도록 관계성의 회복에도 주목하여, 단체 실무자와의 상담과 멘토링 뿐만 아니라 동료 노숙인 그리고 선배 노숙인과의 상담과 멘토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노숙인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실무자 교육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홈리스 지원 전국네트워크>가 마련한 노숙인 지원 실무자 자격인 '반주형지원사'에 마련된 커리큘럼은 자격 급수에 따라 점차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노숙인 지원활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전문적인 활동으로 체계화하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 및 자격과 연결된 체계적인 실무자 교육과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향의 모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별 노숙인 지원 단체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구 모임을 운영하여 노숙인 지원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노숙인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V. 한국과 일본의 교육지원활동 특성

노숙인은 '집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노숙인이 처한 '무주거, 무직업, 무관계'의 3무(無) 상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복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 지원 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 기관에서 노숙인 지원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숙인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자활의지의 회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노숙인 지원활동의 전반을 담당하면서 다른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고착화된 노숙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주거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숙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

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는 반면, 일본은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맥락과 배경에는 무엇보다 두 나라의 제도적·정책적 차이와 함께 노숙인 지원에 바탕이 되는 가치관과 철학에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노숙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통해 지원 단체가 획득한 교육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과 함께 노숙인에게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습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있다.

구인회·김소영·유야마 아쓰시(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정책은 모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주거우선 정책을 확대하며 주거지원과 함께 생활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거리노숙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노숙인 지원의 방향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노숙인이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두 나라의 교육지원 활동에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노숙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막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더라도 해당되는 지원은 탈노숙에 이르는 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사회·경제·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새로운 경로에 대한 모색이 교육지원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 단체인 <다시서기센터>는 탈노숙과 노숙을 반복하는 노숙인에게 교육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당시 <다시서기센터>의 소장으로서 <인문학과정>을 개설하고 헌신적으로 운영했던 임영인 신부<sup>4)</sup>는 주거와 일자리, 먹거리 등의 서비스만으로는 노숙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이 급선무임을 역설했다(임영인, 2006; 2007). 그는 한국사회에서 노숙의 배경에는 노숙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된 측면이 크며 노숙인 스스로 성찰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임영인, 2007: 25). 그 결과 <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 지원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노숙인의 근본적인 자립을 위해 교육지원활동이 또 하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통합적 관점이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특히 <다시서기센터>는 장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차적으로 노숙인의 자

4) <다시서기센터> 前 소장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고, 이후 야학교사로서, 공장노동자의 삶을 살다가 1999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노동자와 빈민 사목을 하던 그는 2005년부터 <다시서기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2009년 8월까지 <인문학과정> 학장으로 참여한 후 현재 일본에서 사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존감과 자활의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공동체적 삶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다. 즉 노숙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는 의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숙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근원적인 힘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자신의 공동체적 삶 또한 복원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인문학과정>의 경우 자기성찰과 문화체험이라는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등의 근로지원과 주거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가 펼치고 있는 교육지원활동은 철저히 노숙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노숙인 보다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더 발전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보장 범위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보다 크고, 탈노숙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키타큐슈 지원기구>의 자립지원주택에 입소한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매달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령의 노숙인인 경우 생활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다.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지만, 이 기간 동안 지원금과 함께 근로가 가능한 노숙인의 경우 이를 통한 수입으로 탈노숙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는 노숙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노숙인 지원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특정한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노숙 생활의 어려움은 대부분 해결된다. <키타큐슈 지원기구>처럼 자립지원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 지원까지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받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렇지만 일본에도 노숙인의 상당수가 자세한 정보를 모른 채 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숙인 지원의 전반을 담당하는 단체 실무자가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자가 노숙인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세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 훈련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교육활동의 차이점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목표에 대한 기대감과 공감대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즉,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와 함께 노숙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공유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시서기센터>의 경우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과 단절된 교육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노숙인 대상 비형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숙인의 자활 및 자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참여 노숙인의 긍정적인 변화와 탈노

숙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노숙인의 인권 중 특히 학습권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지반이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노숙 이후 교육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특권층 또는 부유층과 학령기의 청소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강대중, 2011: 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노숙인과 같은 소외계층은 적극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한국의 노숙인 지원 단체인 <다시서기센터>는 노숙 생활로 접어들어 이후 더욱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노숙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숙인에 대한 교육적 배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노숙인 지원활동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교육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사회가 유지될 것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은 항상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인문학과정>을 개설하기 전에는 노숙인에게 그런 교육은 필요없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밥 한 끼 주고 하룻밤 재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정도로 인식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는 못사는 사람이든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교육 또는 학습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이 사회가 결핍시켰던 거죠. 유독 노숙인을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을 안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연명할 정도로만 했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할 교육기회조차도 이 사회가 배제시켜온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이나 연극프로그램처럼) 1년 과정의 교육들을 도입했던 것은 노숙인을 보통의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다시서기센터> 실무자 D 인터뷰 중).

반면 일본의 노숙인 지원은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길에 있지 않게’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반주형지원사’ 자격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한국 보다 나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이러한 지원 활동의 맥락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숙이 단순히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며, 주거와 일자리를 잃는 과정에서 생애사적으로 누적된 결핍이 존재한다(강대중, 2012)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핍은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극복되기 힘들 수 있다. 일본에서 생활보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며 그동안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는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노숙은 일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키타큐슈 지원기구>에서 활동했던 A씨는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도 자립에 실패한 노숙인들은 지원 단체의 활동 환경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노숙인 스스로 자립의 의지



를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비형식과 무형식을 넘나들며 다양한 교육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지원이 가진 한계에 대한 방증임과 동시에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새로운 경로에 대한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에는 노숙인의 인권, 특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습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노숙인의 '3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자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노숙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실무자'를 각각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관점을 수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활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숙인 문제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보호제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노숙인의 실존적 문제와 인권을 존중하며 지원 단체 실무자와 노숙인이 '함께 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지원 단체들이 상대방의 교육활동의 장점을 이해하고 서로 배우는 것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강대중 (2012). 노숙생활의 진입과 탈출: 학습생애사적 접근, 구인회·정근식·신명호 편.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151-208, 서울: 서울대학교.
- 구인회, 김소영, 유아마 아쓰시 (2012). 한국과 일본의 노숙 문제 비교 연구, **경제와 사회**, 96, 328-359.
- 김수현 (2010).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비교 - 고령 노숙인이 많은 이유에 대한 시론 -, **서울도시 연구**, 11(1), 139-159.
- 김의태, 강대중 (2012). 노숙인 자립을 위한 인문교양교육의 가능성-<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 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8(3), 197-226.
- 김종서, 김신일, 한승희, 강대중 (2011). 『평생교육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2010). 2009년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2011). 2010년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 서종균 (2011). 2010년 거리 노숙인 조사결과 보고. 2010년 전국홈리스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 5-29, 2011년 1월 27일,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2012). 거리의 인문학, 서울: 삼인.
- 신명호 (2011). 노숙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 노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90, 13-44.
- 신명호 (2012). 노숙인의 심리상태와 탈노숙 지원 방안, 구인회·정근식·신명호 편,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243-285, 서울: 서울대학교.
- 임영인 (2006).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교육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 2006 얼쇼리스 초청 국제 세미나 워크숍 “한국형 <클레멘트 코스> 설립을 위한 실제”, 다시서기센터, 8-19.
- 임영인 (2007). 인문학 교육으로 노숙인에게 희망을, 경향잡지 5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2-25.
- 임철우·우기동·최준영(2008). 행복한 인문학: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의 인문학 수업, 서울: 이매진.
- 프락시스 (2011). 201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연구보고서.
- 홈리스지원 전국네트워크 (2011). 2011년도 반주형생활지원사 인정강좌 안내자료. 비간행자료.
- Aoki, H. (2006). *Japan's underclass: Day laborers and the homeless*. (Trans. by Teresa Castelveter). Melbourne, Australia: Trans Pacific Press.
- Drury, D., & Koloski, J. (1995). *Learning to hope: A study of the adult education for the homeless*

program. Washington DC: Pelavin Associates, Inc.

Howard, P., Marchant, T., Hampshire, A., Butcher, J., Egan, L., & Bredhauer, K. (2008). Promoting social inclusion: Emerging evidence from the catalyst-clemente program. *Australian Journal of Adult Learning*, 48(3), 479-501.

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1998). *Adult Education for the Homeless: A Program in Jeopardy*. Washington, DC: Division of Adult Education and Literacy, US Department of Education.

Rivera, L. (2003). Changing women: An ethnographic study of homeless mothers and popular educati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0(2), 31-51.

Stevenson, J., Yashin-Shaw, I., & Howard, P. (2007). Reclaiming bodily dispositions through the humanities: Homeless people learning.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9(4), 419-434. doi:10.1080/13636820701579654

#### 《홈페이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http://www.homelesskr.org>

<카마가사키 지원기구> <http://www.npokama.org>

<고향의 모임> <http://www.hurusatonokai.jp>

\* 논문접수 2013년 2월 4일 / 1차 심사 2013년 2월 28일 / 게재승인 2013년 3월 21일

\*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평생교육전공)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성인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최신교육학개론'(공저), '평생교육개론'(공저),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등이 있다.

\* E-mail: kdj@snu.ac.kr

\* 박지숙: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평생교육전공)를 졸업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복지연구실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평생교육전공)에 재학 중이다.

\* E-mail: piaozi7@snu.ac.kr

\* 김의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평생교육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민교양교육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평생교육전공)에 재학 중이다.

\* E-mail: findinghope99@hanmail.net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al Activities of NGOs for Homeless Support in Korea and Japan\*

Kang, Dae Joong\*\*

Park, Ji suk\*\*\*

Kim, Eui-ta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educational activities of NGOs for homeless support in Korea and Japan. We selected Korea and Japan's representative NGOs, <Korean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 and <Japanese National Homeless Support Network> and found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ducational activ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of all, both NGOs commonly developed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homeless with the help from the other organizations that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homeless. <Korean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 focuses on education program for the homeless, whereas <Japanese National Homeless Support Network> emphasizes training program for the NGO staffs. The differences were originated from the two countrie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homeless.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s relatively weak; therefore, Korean NGO came to empower the homeless through the long-term educational programs for recovering self-esteem and building support system gradually. In contrast, Japanese NGO basically works on the basis of relatively firm social security system. It is important in Japan to train NGO staff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help the homeless with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is is why Japan introduced qualification system for NGO staffs that Korea does not have yet.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two countries' NGOs can inform with each other what they need to develop their practices.

Key words: The homeless, Korea, Japan, NGO for the homeless support, Right to lear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0 Asia Research Fun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It was presented at the 4th Korea-Japan Joint Academic Research Conference, Kobe University, Japan in 25-26 January 2013, which was co-sponsored by The Japan Society for the Study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and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Doctoral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